

17세기 朝鮮政治史에서 名分과 利害

이재철*

|| 차례 ||

1. 머리말
2. 名分과 利害의 논리
3. 名分과 利害의 갈등
4. 名分과 利害의 조정
5. 名分の 허구화와 利害의 중시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7세기 조선정치사를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이었던가에 주목하고, 이를 원칙을 강조하는 명분과 현실상황을 중시하는 이해의 두 요소로 설명하고자 했다. 명분은 사람이나 사물, 행위 등이 지닌 名目과 그 명목에 합당한 본분을 의미하고, 반면에 이해는 가변적인 현실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논리이다. 17세기 조선 정치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명분으로 尊明事大와 禮論, 禮義廉恥 등이 있었고, 이해는 主和論이나 禮訟에서 남인의 논리, 권력의 향방에 따른 봉당의 분립 등이 있었다. 조선의 정치 이념인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정국 운영에서 명분과 현실의 갈등이 일어났다. 斥和論과 주화론의 대립, 元宗追崇 논쟁에서 반정공신과 산림학자의 갈등, 예송에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 정치구조에서 삼사와 비변사의 갈등, 봉당이론에서 군자소인론과 조제론의 갈등, 정국 운영논리에서 원칙론과 현실론의 갈등 등이 곧 그것이다.

명분과 이해는 서로 갈등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대체로 현실 정국운영에서 양자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원칙론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이해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17세기 사림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명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연구원

분론의 집착은 현실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었고, 반면에 현실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립정치의 제도를 이탈하는 것이었다. 명분과 이해가 조정되는 과정은 명분을 대변하던 삼사의 논의가引見이나主論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비변사의 논의에 반영되는 데서 확인된다.

명분과 이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명분이 허구화되고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는 청나라의 중원 차지로 변화되면서 존명사대 명분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이를 현실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명분도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명분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동향에서도 효종 후반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서인 宋時烈계는 환국을 거치면서 명분적 우위와 권력(이해)의 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척세력과 결탁하게 되었다.

요컨대 훈구파의 전횡과 비리를 극복하면서 확립된 17세기 사립정치는 원칙과 명분에 투철하고자 노력하면서 현실의 이해를 중시하는 계측면과 갈등을 벌였고, 삼사의 공론을 비변사에 확산, 관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봉당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현실을 이해를 중시하게 되면서 사립의 명분은 퇴장하고, 사립정치의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주제어 명분, 이해, 원종추송(元宗追崇), 주화론(主和論), 척화론(斥和論), 예송(禮訟), 삼사(三司), 비변사(備邊司), 군자소인론(君子小人論), 조제론(調劑論), 주론자(主論者), 인견(引見)

1. 머리말

1980년대 이후 17세기 조선정치사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이론의 모색과 충실한 실증이 이뤄져왔다.¹⁾ 종래 망국의 원인과 당파성의 부각에 초점을 맞춘 당쟁적 인식에서 벗어나 학파를 모체로 성립된 봉당이 공존을 도모하

1) 李在喆, 『朝鮮後期 政治史의 研究動向과 고교 국사교과서의 敘述-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歷史教育』 67, 1998.

였다는 소위 ‘붕당정치론’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사를 분석함으로써 퇴장한 정치사가 복권되었다²⁾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붕당정치론이 새로운 역사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그 이론의 타당성과 실증의 구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붕당정치론이 당쟁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 시기 역사상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 ‘사림정치론’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론에 대한 검증과 실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³⁾

이런 관점에서 17세기 정치사의 연구에서 새로운 이해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이 시기 정치운영에서 관통하는 논리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원칙론적인 ‘名分’과 현실론적인 ‘利害’의 두 요소라고 규정짓고, 이에 근거하여 17세기 정치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찍부터 이 시기 정치사를 명분이나 이해의 한 측면에서만 접근한 인식이 있어 왔다. 붕당간의 대립이 첨예하였던 시기에 생존하였던 인물들은 주로 이해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강조하였다. 예컨대 李灑이 붕당이 성립하게 된 원인을 이해를 둘러싼 다툼으로 설명한 것이나,⁴⁾ 李重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吏曹銓郎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으로 파악한 점⁵⁾은 그 사례들이다. 이것은 한말에 민족주의사학자들이 망국의 원인을 당쟁의 탓으로 돌린 인식과 일제식민사학자의 당파성론으로 연결되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어느 시기에나 항상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측면에서만 역사상을 설명한 것은 균형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갈등 측면을 비판하고 조화·조정을 강조한 붕당정치론도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한

2) 이훈상, 「회고와 전망」 조선후기편, 『역사학보』 152, 1996.12.

3) 鄭萬祚, 「朝鮮時代の士林政治」,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2.

4) 李灑, 「朋黨論」, 『星湖集』 권25, 雜著.

5) 李重煥, 『擇里志』 人心條.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해의 반대쪽 논리인 명분에서 접근한 시각도 있다. 16세기 성리학의 확산으로 성립된 사림정치는 원칙론·명분론에 근거한 현실 인식과 대응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이중환은 조정 풍속은 염치를 숭상하고 名節을 중시한다고 했고,⁶⁾ 李建昌은 당쟁의 8대 원인의 하나로 名義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계승하여 일제시대 石井壽夫는 17세기를 理學至上主義 시대라고 하였다.⁷⁾ 최근에 李成茂는 당쟁연구에서 이기적·물욕적 관심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후대인의 선입견 때문에 생긴 편견이므로 명분론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 근거로 건국초기 魯明事大와 유교윤리, 병자호란 후 존명사대를 두고 노·소론이 분열된 점 등을 제시했다.⁸⁾ 따라서 17세기 정치사의 균형된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명분의 양 측면에서 함께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쟁론적인 인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고, 성리학적 이념에 투철하고자 했던 사림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 모습을 살피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17세기 정치사에서 작용하였던 명분과 이해의 논리들을 찾아내고, 나아가 현실 정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해와 명분이 어떻게 갈등과 조정을 거쳤는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명분이 허구화되고 이해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아갔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17세기 정치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인식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6) 위와 같음.

7) 石井壽夫, 「後期李朝黨爭에 대하여 …考察」,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洪淳民 역, 汎潮社, 1985.

8) 李成茂, 「朝鮮後期 黨爭研究의 方向」,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 1992, 333~334쪽.

2. 名分과 利害의 논리

명분은 사람이나 사물, 행위 등이 지닌 명목과 그 명목에 합당한 본분을 의미한다. 명분은 사람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명목과 본분을 일치 시킴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시키는 규범이 된다. 유교는 인간관계의 도덕적 질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적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명분의 개념은 특히 유교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었다. 명분의 양상을 크게 구별해 보면, 봉건적 사회질서인 '신분적 명분'을 비롯하여, 도덕적 내지 법률적 정당성에 따르는 '명목적 명분',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적·선택적 행위로서 '처세적 명분', 강상론적 신념을 생명을 바쳐 지키는 '절의적 명분', 국가체제나 국제질서의 정치적 정당성으로서 '대의적 명분'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道學이 융성하게 발전하면서 강한 의리와 정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명분에서도 절의의 정당성과 함께 국제질서 속에서 '尊華攘夷'의 춘추대의를 내세우는 대의적 명분이 중시되었다.⁹⁾

17세기 조선 정치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명분으로 위로는 국가의 존망이나 왕실의 정통성 여부가 달린 존명사대와 예론이 있었고, 아래로는 양반 지배층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된 예의염치가 대표적이었다.¹⁰⁾ 1636년 병자호란 직전 청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사대부 지배층은 국가의 존망보다는 명과의 사대의리를 우선시했다. 그러나 청에게 항복함으로써 사림의 의리 명분은 일시 좌절되었고, 전후 국정을 책임진 崔鳴吉이 실리에 바탕으로 하여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명길은 끝내 의리명분

9) 琴章泰, 「名分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1991. 839~844쪽.

10) 石井壽夫는 의리의 실체는 17세기 전반에는 尊明思想이었으나, 후반에는 禮論이라고 하였다. 이를 존중하면서 활기에 넘쳤으나, 당쟁이 심해지자 이 붕당의 의리는 무너지기 '가족주의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18세기 蕩平時代의 偏黨, 19세기 威臣世道로 기울어져 갔다고 주장하였다. (石井壽夫, 앞의 논문)

상 책임을 면치 못하였고,¹¹⁾ 반면에 山林 宋時烈은 철저한 대명의리를 인정받아 정국을 주도하고 이를 국왕의 권위보다 상위에 두고자 했다.¹²⁾ 게다가 효종은 자신의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복벌의 기치를 내걸어 의리명분에 투철하고자 하는 사림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두고 성리학적인 명분을 고수하려는 논쟁이 元宗 追崇論에서 禮訟으로 발전하여 국정 운영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현실 권력의 원천인 국왕의 행위도 의리에 합치되어야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¹³⁾

명분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끊임 없이 재생산되었다. 사림과의 집권 과정에서 역할이 강화된 儒疏나 대간의 避嫌·處置 등이 그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세력의 분화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북인 내부의 大北·中北·小北, 서인 내부의 功西·老西, 남인 내부의 淸南·濁南 등이 곧 그것이다. 따라서 봉당 간의 공존은 일시적이었으며, 결국 명분적 우위를 차지한 정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즉 정파간의 갈등에서 의리명분 논쟁이 전면에서 등장하고 현실의 이해는 뒷면에 가려짐으로써 명분적 우위를 장악한 정치세력이 군자당으로 자처하며 상대 세력을 소인으로 비난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명분 논쟁은 예의엄치를 근본으로 하는 개인적 명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의엄치는 개인적으로는 수신의 필수 덕목이 되었는데,¹⁴⁾ 엄치와 명절에 약간의 혐의라도 받으면 아무리 고위 관료라도 당

11) 李在喆, 「遲川 崔鳴吉의 經世觀과 官制變通論」, 『朝鮮史研究』 1, 1992.

12) (校理尹) 深淵 合啓之論 實是忠憤所激 以尊君上明義理者也 雖君上安得抑之也. (『현종실록』 권13, 현종 8년 1월 을사)

13) 石井齋夫는 조선후기를 理學至上主義時代라고 규정하고, 宋子의 理學은 君臣의 義(理), 즉 충의 관념을 강조하고 있는 데 최고절대의 권위는 실재하는 국왕이 아니라 가공적 '道'이므로 국왕은 義理에 합치하는 한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 고 했다. (石井齋夫, 앞의 논문, 51쪽.)

연히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¹⁵⁾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데,¹⁶⁾ 이를 송시열은 현종에게 올린 상소에서

예의엄치는 四維이니 四維不張이면 나라가 곧 멸망합니다. 주자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사대부의 辭受出處는 홀로 그 몸의 일만은 아닙니다. 곧 풍속의 성쇠와 관계됩니다.¹⁷⁾

라고 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이해는 가변적인 현실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논리이다. 현실 상황에서 명분의 적용이 어렵게 되고 이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인조반정 이후 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主和論이나 예송에서 왕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남인의 예론을 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 권력의 향방에 따라 봉당 내부에 이합집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병자호란 직전 최명길은 명분론에 맞서 후금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난후에는 국가를 수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權道論으로 현실을 합리화 시켰다.

청에게 항복한 것은 宗社와 백성을 위해서 시세, 의리로 봐서는 최선의 방책

1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경자 : 동 권4, 현종 2년 6월 경진 :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4년 12월 갑자.

15) 三公六卿 官雖高大 小有不厭事 銓郎輒使三司諸臣論之 朝廷風俗 崇廉恥 重名節 故一遭彈駁 不得不去職(『擇里志』 人心條) : 都承旨 李時樸 再上疏辭職 其略曰 (중략) 國家用人 名節是尙 士夫處身 廉恥爲重(『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9월 갑술) : 副校理 閔鼎重上疏曰(중략) 廉恥名節 一切壞了 則諍言未聞於平日 義士難責於臨亂 此天之所戒也(『효종실록』 권 10, 효종 4년 1월 임신).

16)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을사 :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 6월 신축 : 동 권17, 현종 10년 12월 병자.

17)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월 6월 경자.

이었습니다. 공자가 조그마한 어려움도 참지 못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春秋』에 권도는 아주 곤경에 이를 때만 행한다고 하였으며,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세대의 변화이고 무궁한 것은 의리입니다. 천하에 일이 없을 때에는 經常을 성실히 지키되, 역경에 처해서는 능히 변통할 수 있었어도 행한다면 가히 성인의 권도입니다.¹⁸⁾

즉 위기에 처한 종사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권도를 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 때문에 부모의 나라를 위협하는 청나라에게도 臣事가 가능했던 것이다.

최명길의 현실 인식은 현종대 許積이나 徐必遠 등에게로 계승되었다.¹⁹⁾ 현종 7년 청 사신이 3년 전에 조선에 망명한 安秋元이란 자를 대명의리상 압송하지 않았던 점과 禁物인 유황을 청으로 밀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하려 왔을 때, 우의정 허적은 마치 병자호란 후 최명길이가 한 것처럼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²⁰⁾ 그리고 현종 9년 풍기군수 魚尙儔이 尹集·吳達濟·洪翼漢 등 척화 삼신을 모시는 사당 건립을 요구한데 대해, 우의정 허적은 이들이 나라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과격한데만 힘쓴 인물들이라고 평가절하였다.²¹⁾ 또한 현종 4년에 개인적인 반청의리 때문에 청 사신의 접대를 거부한 수찬 金萬均을 비판하는데 앞장선 바 있는 서필원은 같은 논리로 심각한 기근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에라도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다.²²⁾ 이들의 논리는 현실 상황을 중시한 것으로 존명의리를 신봉하던 산림계의 인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은 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정치세력

18)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5월 임오.

19) 鄭萬昨, 『顯宗朝 私議·公議 論爭』, 『韓國學論叢』 14, 1991.

20) 『현종실록』 권12, 현종 7년 7월 병신 : 동 권13, 현종 8년 1월 정해.

21)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7월 갑자.

22) 『현종실록』 권19, 현종 12년 7월 갑자.

에게서 잘 나타났다. 효종대 이후 외척으로서 漢黨系를 이끌던 金錫胄는 학과상 서인에 속하였지만, 왕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예송에서 남인과 연대하였고, 그 결과 세력이 강성해지자 이번에는 자신이 견제했던 송시열과 손을 잡았다.²³⁾ 권력의 강약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정국 운영에서 이해를 따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던 정치 세력으로는 공신·관료·훈척 등이 있었고, 이해를 뒷받침하는 정국운영론은 調劑論이었으며, 이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로 備邊司를 들 수 있다.

요컨대 명분과 이해는 17세기 조선 사회를 움직인 양대 논리였으며, 명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는 원칙론이었고, 이해는 현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응하는 현실론이었다. 이 두 요소는 현실 정치에서 拮抗을 거듭하고 갈등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적 특징을 표출하였다.

3. 名分과 利害의 갈등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정착되면서 명과 청을 둘러싼 국제관계,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변화에 따라 명분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명분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斥和論과 主和論의 갈등, 元宗 追崇論과 禮訟에서 왕실 의례와 사대부 의례의 차별적 적용, 삼사와 비변사의 대립, 정치세력에서 원칙론자와 현실론자의 갈등 등이 곧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명분과 이해의 갈등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3) 鄭萬祚,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韓國文化』 23, 1999.

1) 斥和論과 主和論의 갈등

중국을 중심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은 존화양이의 대의명분을 지키려는 척화론과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려는 주화론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는 먼저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조 29년 4월부터 7월까지 일어난 통신사의 파견 논란에서 들어났다. 조선의 고위 신료들은 더 이상 일본과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강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에 통신사의 파견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대간에서 이에 대해 극렬하게 비판하자, 비변사에서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양사의 계사를 보건데, 이는 진실로 정당하고 큰 논의입니다. 신들도 어찌 이 뜻을 모르겠습니까? 급일과 같은 정세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이 계사에 따라서 대의를 부르짖으며 한 마디로 거절하는 것이 어찌 정확하고 간단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특히 정세가 불가하기 때문에 허다한 사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모로 생각해보아도 편의한 계획이 떠오르지 않으므로 부득이 下計를 내어 구차하게 목전의 위급함을 늦추고자 합니다.²⁴⁾

즉 중화질서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일본과 강화를 거부하는 것이 대의명분인 줄 알지만은, 목전의 다급한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명분과 이해의 갈등은 명, 청 교체기에 더욱 심화되어 17세기 정치사의 운영 논리로서 확연히 들어났다. 광해군 후반 명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후금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징병을 요구하자, 부모의 나라이고 임난시 再造之恩을 파서는 당연히 이에 적극 응해야 되지만, 강성한

24) 『선조실록』 권76, 선조 29년 6월 임술.

후금의 현실 상황을 봐서는 쉽사리 나설 수 없었다. 존명사대의 명분과 현실의 이해에서 극단적인 괴리가 일어났던 것이다. 신료들은 대부분 전자의 입장에서, 반면에 광해군은 후자의 입장에서 논쟁을 거듭하였고, 결국 후금 정벌에 응하여 만주에 파견되었던 姜弘立 군대가 패전한 뒤에는 광해군의 정국 주도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주화론과 척화론의 갈등은 청이 중국을 차지해가는 국제정세와는 상반되게, 국내에서 승명배척을 표방하는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절정에 달했다. 명분과 이해의 극단적인 배치가 일어났던 것이다. 존명외리를 반정의 명분으로 삼았다가 인조 5년 정묘호란을 당하였는데, 이 때 국방은 허약하고 인심은 동요되어 대부분 신료들이 화의를 내심 원했었지만, 명분 때문에 들어내지를 못하였다. 결국 李貴·최명길 등 반정공신이 주도하여 화의를 성사시켰는데, 이에 대해 주화론자와 척화론자는 각각 평가를 달리하였다. 전자는 화의를 성사시킴으로써 민생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²⁵⁾ 후자는 화의를 했기 때문에 군사 준비를 소홀히 하여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²⁶⁾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인식 차이는 결국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인조 14년 2월 청의 稱臣 요구를 수용할지를 두고 조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청의 침략을 당하였다. 병자호란 후 최명길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명분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異論을 주장하여 주화자를 종처럼 여기고 척화자를 주인처럼 여긴다”²⁷⁾라고 한 것처럼 주화론과 척화론은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했고, 명분의 확고한 우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병자호란 후 척화론을 계승한 산림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이들에 의해 효종대 북벌대외가 주창되었으며, 이는 청을 중심한 국제질서가 굳어진 뒤에도 쉽

25)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9월 을사 : 동 권35, 인조 15년 5월 임오.

26)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9월 경신.

27)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5월 임오.

사리 포기될 수 없었다.

2) 元宗 追崇論과 禮訟의 전개

인조의 생부인 定遠大院君을 元宗으로 추송하여 종묘에 入廟시키기까지 인조 즉위때부터 13년간 논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정원대원군을 종통에서 배제시키려는 명분론과 추송을 통하여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반정의 공로를 정당화하려는 이해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조선전기 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고대의 혈연적 종법관에서 의리명분적 종법관으로 정착, 발전되었다.²⁸⁾ 전자는 朴知誠의 주장에서 잘 나타났는데, 太宗이 된 인조의 종통을 私家와 일치시켜려는 것이었다.²⁹⁾ 박지계의 주장을 추송론으로 완결지은 인물은 이해를 중시하려는 최명길이었다. 그는 別廟에서 入廟로, 다시 추송으로 주장을 바꾸었는데, 그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인조반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이미 인조가 정원대원군에게 稱考·稱子했다는 점이였다. 이것은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용납될 수 없는 논리였으나, 현실의 문제를 '實理'로 해결하려는 최명길에게는 당연한 인식이었다.³⁰⁾

반면에 김장생 등 사림계는 왕실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인조가 사친인 정원군 사이에는 부자의 혈연적 관계는 남아 있지만, 선조의 대통을 이었으므로 의리상 사친의 관계는 끊어지고 선조와 부자의 의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17세기 극도로 발달한 주자학적인 명분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사회에서 양자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점에서도 혈통보다는 주자학

28) 고영진, 「17세기 전반 의리명분론의 강화와 사회경제 정책의 수립」, 『역사와 현실』8, 1992.

29) 李迎春, 「仁祖의 宗統과 元宗追崇」,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145~175쪽.

30) 李在喆, 「遯川 崔鳴吉의 經世觀과 官制變通論」, 『朝鮮史研究』, 1992, 53~59쪽.

적인 명분이 더 중시되어간 경향을 엿볼 수 있다.³¹⁾

추송론에서 명분과 이해의 대립은 양차의 예송으로 발전하였다. 예송은 17세기 조선 예학계에서 상이한 두 종류의 학문전통에서 발생한 인식의 차이였다. 예송의 성격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요점은 현실의 이해 측면을 중시한 王朝禮 중심의 분별주의 경향과 원칙의 명분 측면을 중시한 家禮 중심의 보편주의 관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현종 1년 기해예송에서 송시열은 왕조례를 士大夫禮와 동일시하여 耆年服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許穆은 차자가 承重하더라도 왕실의 경우는 齊衰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양측의 학문적 논쟁은 尹善道가 송시열에 대한 인신 공격성 상소를 함으로써 이해의 측면을 보다 선명히 하게 되었다. 즉 이후 현종 15년에 일어난 갑인예송은 왕실을 둘러싼 제세력들이 개입함으로써 왕실의 이해, 즉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예송에서 정파간의 갈등을 명분과 이해의 대립 구도로 살피는 것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三司와 備邊司의 갈등

17세기 명분과 이해의 갈등 구도는 이를 실현하는 정치구조에서 삼사와 비변사와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³³⁾ 삼사는 성리학적인 명분에 투철하고자 했고, 비변사는 현실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는 선조 27년 6월 부수찬 鄭晔이 “삼사는 대의를 주장하고 비변사는 이해를 주장한다”³⁴⁾라고 한 데서 잘 나타난다. 삼사는 사림의 논의를 공론으로 수렴하여 훈구파의 전횡

31) 李成茂, 「17世紀의 禮論과 黨爭」,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 1992. 77쪽.

32) 李迎春, 「顯宗代 宗統論爭과 政局變動」, 앞의 저서, 216~273쪽.

33) 李在喆, 『朝鮮後期 備邊司研究』, 集文堂, 2001. 200~212쪽.

34) 『선조실록』 권52, 선조 27년 6월 을축.

과 비리를 성리학적인 명분의 기준에서 비판하였고, 이는 이후 사람정치의 운영 논리가 되었다. 예컨대 광해군 5년 3월 사헌부에서

대간은 임금의 이목으로 일시의 공론을 주도하므로 알고서 말하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하며, 말하는 데는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政令이 극비에 관계되더라도 크던 작던 더불어 모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³⁵⁾

라고 하여 공론을 주도하는 대간은 아무리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도 당연히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종대 처음 설치되고 임난 이후 기능이 강화되어 政曹의 고위 신료들이 국정을 논의하던 비변사에서는 명분보다는 이해를 더 중시하였다.³⁶⁾ 비변사의 집약된 논의를 '群議'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삼사의 공론과는 달리 실리를 우선시 했던 것이다. 예컨대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삼사에서 절화론에 집착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자, 비변사에서 논의를 주도하던 大臣 최명길은 국왕과의 독대와 密啓를 통하여 대청관계를 수습하고자 했다.³⁷⁾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론이 가지는 명분성보다는 비변사 군의의 현실적인 논의가 국정운영에 더 적절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실 정치 상황에서 명분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을 때 명분을 중시하는 삼사와 이해를 대변하는 비변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병자호란 직전에 삼사에서 고집하던 절화론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 혼란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인조 17년 6월 청에 승리를 축하하는 국서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대간에 대해 비변사가 다음과 같이 반박한데서 잘 나타난다.

35) 『광해군일기』 권64, 광해군 5년 3월 신미.

36) 李在喆, 앞의 저서, 200~212쪽.

37)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3월 갑인.

대저 묘당(비변사)과 대각은 맡은 바 직분이 각각 다릅니다. 正論을 지키고 의리를 밝히는 것은 대각의 임무이며, 경중을 저울질하고 이해를 참작하여 중요 사적을 보존하는 것은 묘당의 책임입니다. 논한 바와 본 바가 비록 같지 않더라도 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데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인조 16년) 묘당이 지나치게 삼사에게 견제되어 이미 떠나보낸 사신을 중지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큰 화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로서 거울삼을 만한 것으로, 신들은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³⁸⁾

즉 비변사는 삼사의 의리에 구애되지 말고 이해를 참작하여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양측의 갈등은 임란시 일본과의 강화 여부, 광해군때 후금에서 보낸 국서의 수용 여부, 정묘·병자호란시 강화 논쟁 등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질서가 청의 중원 지배로 굳어지면서 점차 해소되어 갔지만, 이후에도 국내정책의 논의와 집행과정에서 지속되었다. 즉 비변사는 국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이고 현실 유지적인 개선안을 중시한 반면에, 삼사는 근본적인 폐단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변통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국운영에서도 삼사와 비변사의 갈등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대 후반 삼사는 비변사의 비변대책에서 무용론이나 관직체계에서 侵官의 폐단을 거론하며 비변사체제를 부정하려 했다. 이후 광해군 후반에는 비변사에 포진한 서·남인과 삼사를 근거지로 하는 대북과 대립이 있었고, 인조대에는 사람계 관료들은 비변사에서, 사람은 삼사를 중심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4) 君子小人論과 調劑論의 갈등

17세기 붕당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국운영론인 붕당론에는 君子와 小人을 변별한 뒤 군자 중심으로 정국을 이끌어가자는 君子小人論과 인사정

38)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 6월 신축.

책에서 당색을 초월하여 인물을 등용하지는 調劑論이 대표적이었다.³⁹⁾ 송나라 歐陽修와 朱子가 사대부의 성장에 따라 군자소인론의 변별에 의해 군자 중심의 붕당을 인정하였지만, 조선초기에는 붕당을 私黨으로 죄악시하여 처벌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대 사림파의 진출과 함께 자파의 정치집단화 현상을 정당화 하면서 君子有朋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주장은 훈구파에 대한 사림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가능하였지만, 사림정치가 확립된 후 사림 내부에 붕당이 분립되면서 모두 사류(군자)이기 때문에 조계론이 제기되었다. 군자소인론은 원칙적(명분적) 주장이고, 조계론은 이 원칙을 조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나의 현실(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사림정치기에는 이 두 정치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쟁은 정국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군자소인론은 명분을 강조하는 사림정치의 운영논리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정당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정치논리를 제공하던 산림에 의해 강하게 주창되었는데, 효종 즉위년 10월에 장령 송시열은

대저 香草와 惡草는 한 이랑에 심지 못하고, 얼음과 솟은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실정이 이미 다른데 억지로 같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같게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논핵을 입은 사람이 과연 문을 닫고 들어 앉아 자취를 거두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진다면 어진이가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니 그 누가 막겠습니까? 이렇게 한 연후에 구슬이 한 가닥 끈에 같이 꿰어듯이 함께 대도로 나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平平蕩蕩의 기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음양이 서로 다투고 시비가 각각 다른 상황으로서 이쪽이 저쪽을 이기지 않으면 저쪽에서 이쪽을 이기게 되어 본시 양쪽이 서로 버티면서 끝내 결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賢否를 구별하지 않고 피치를 분간하지 않는 것으로 공평한 도리를 삼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저쪽의 형세를 도와 그

39)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들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하여 감히 누가 무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元祐의 調停策과 建中의 持平策이 후세에 비웃음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40)

라고 하여, 서로 갈등과 대립을 보이는 두 정치 집단 간에 공존이나 공존 자체를 거부하였다. 군자와 소인의 엄정한 분별이야말로 음양이나 시비를 분별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은 정국운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론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송시열은 이를 국가의 안위와 세도의 존립여부로까지 확대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송시열을 신봉하는 서인이 산림세력을 비판하는 인조반정공신에 대해 방어논리로서 정당화시켜 주었고, 나아가 牛栗從祀 논쟁에서는 서인을 군자, 남인을 소인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41)

반면에 조제론은 봉당 내에 군자와 소인이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왕이 봉당을 미워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進賢退邪와 惟是才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조 3년 10월 이조참의 李明漢은

피치는 물론이고 색목에도 구애되지 마시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어진 자는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사람들이 각각 자신을 닦아 어진 자와 능한 자는 모두 조정에 모이게 될 것이니, 이른바 봉당은 타파하려 하지 않아도 절로 타파될 것입니다. 42)

40)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0월 계묘.

41)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136쪽.

42) 『인조실록』 권10, 인조 3년 10월 을사. 조제론에서도 시비명분을 주장하나, 군자소인론은 봉당 전체를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였고, 조제론은 봉당 내부에 군자와 소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한 점이 다르다. 시비명분의 주체를 사림정치기에는 신료로 보았기 때문에 봉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였으나, 탕평정치기에는 군주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라고 하여 색목에 구애되지 말고 조제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제론은 인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대다수 관료들의 지지를 받아 당시 조정의 봉당론을 대표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간에 서인 정권이 남인 및 일부 소북계 인물까지 등용할 수 있게 하였다.⁴³⁾ 대체로 군자소인론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조제론은 열세에 처한 세력에 의해 각각 견지되었는데, 숙종대 이후 군자소인론에 의한 극단적인 환국이 단행되고 왕권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새로운 정치이론, 즉 탕평론이 대두하였다.

5) 原則論者와 現實論者의 갈등

17세기 정치세력은 봉당 단위보다는 다양한 정파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봉당 분립의 초기에는 각 정치 세력이 학문, 사상, 경제정책 등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봉당을 초월한 교유관계나 혼인관계는 이를 응변한다. 최근 정치세력의 사상과 사회경제 정책의 연구에서 학파와 정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17세기 전반에는 서인산림, 서인관료, 남인학파, 북인관료 등으로 구분하였고, 17세기 후반에는 노론학자, 노론훈척, 전향노론, 소론학자, 영남남인, 근기남인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⁴⁴⁾ 예컨대 17세기 양역변통론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호포론의 찬반 논쟁에서 남인과 서인이 착종되어 있었으므로 서인과 남인의 2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찬성론자로서 남인 급진론자 尹鏞는 신분제 개혁을 전제로 했으며, 서인 개혁관료 김석주는 신분제 유지를 전제로 했다. 반면에 반대론자로 서인 보수파인 金壽興·李端夏와 남인 보수파

43) 鄭萬祥,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141쪽.

44) 고영진, 「총론: 17세기 전반 의리명분론의 강화와 사회경제 정책의 대립」, 『역사와 현실』 8, 1992. ; 17세기 유학사상사연구반, 「총론: 17세기 후반 사상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13, 1994.

허목 등이 있었다. 그 외 북벌론, 예송, 호패법, 오가작통법, 양역변통론 등의 논쟁은 정치집단 간의 권력 투쟁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과 학파적 기반위에서 전개되었다. 성리학의 이해가 심화되면서 학문적 경향의 차이가 다양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파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정치세력을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자성리학의 원칙론에 충실했던 세력과 현실의 가변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세력으로 나뉘어서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자는 서인 산림계가 대표적이었는데, 대동법, 호패, 軍籍法, 鑄錢, 用錢, 鹽鐵論 등의 제정책에 대해 소극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후자는 서인관료, 복인관료들이 중심이 되는데, 은광개발, 주전, 용전, 염철론 등의 정책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자성리학 이외 양명학, 주례, 순자의 학문에 경도된 소론, 근기남인들도 후자에 속하였다.

한편 정국운영에서도 원칙론자와 현실론자의 대립이 있었는데, 대체로 전자는 산림세력이 중심이었고, 후자는 훈척, 실무관료, 공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곧 성리학적인 명분 및 신권위주의 정국을 도모하던 세력과 국왕 및 외척의 연립 세력과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인조대 사림계의 淸西와 반정공신계의 功西의 대립, 효종·현종대 사림계의 山黨과 외척 漢黨의 대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붕당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세력이 형식적으로는 명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력을 두고 양자간에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원칙론자는 왕권과 신권 간의 균형을 지향한 반면에, 현실론자들은 국왕권에 의탁하여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다. 원칙론자들은 “어찌 사류로 이름하면서 외척에게 진퇴를 달갑게 받겠는가”⁴⁵⁾라든지, “사류와 훈척은 예부터 서로 용납할 수 없다”⁴⁶⁾라

45)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4월 무자.

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훈척들은 사류들이 신권위주의 정국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사림정치의 확립으로 정국동향, 정치세력, 정치운영론, 정치 구조 등 제방면에서 원칙을 강조하는 명분론이 우세한 가운데 현실 상황을 반영하려는 이해론도 존재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다. 이는 어느 시기의 정치사에서든 찾을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갈등의 양상에서 훈구파의 전횡과 비리를 극복하고 성리학적인 명분에 투철하고자 노력하던 사림의 역사적 경험과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곧 사림정치의 특징이라 하겠다.

4. 名分과 利害의 조정

명분과 이해는 서로 대립적인 요소로서 갈등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대체로 현실 정국운영에서 양자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국정운영에서도 원칙론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이해론의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17세기 사림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명분론의 집착은 현실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었고, 반면에 현실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정치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정치세력의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산림계나 남인은 공신집단과 정치적 지위나 학문적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소인으로 평가하거나 사상 투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이는 학문적 교류, 통혼, 봉당론에도 반영되어 있다.⁴⁷⁾ 남인 鄭經世는 서인 金長生·宋浚吉 등과 서신을 통하여 예에 관한 의견을 교

46) 『숙종실록보궐정오』 권14, 숙종 9년 윤6월 무진.

47) 吳恒寧,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 9, 1993.

환하였고, 남인 鄭述의 문인 황중해가 김장생에게 예학을 배웠다. 이는 봉당 분립 초기에 학파간의 학문교류가 있었으며, 학문적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⁴⁸⁾ 명분과 이해가 조정되는 과정을 명분을 대변하던 삼사의 논의가 이해를 실천하던 비변사의 논의에 반영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⁴⁹⁾

삼사와 비변사는 각각 명분과 이해를 중시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은 효종대 이후 삼사의 논의를 비변사에 반영시키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삼사에서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이 비변사로 전환됨으로써 당연히 비변사 운영에도 관여하여 이것의 시비를 가리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삼사의 주장에 따라 비변사 논의가 결정되기도 하였으며, 비변사 ‘群議’에도 삼사의 논의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광해군 11년 7월 좌의정 趙挺이 후금의 국서를 영의정 朴承宗家에 가져 가서 논의하자, 박승중은 공론 소재도 역시 불가불 문의하여야 한다⁵⁰⁾라고 하여 삼사의 논의를 구한 뒤에 비변사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또한 광해군 13년 2월 후금과의 국서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정을 주도하던 李爾瞻은 삼사가 강경론을 고수하도록 배후조종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이를 수용케 했다.⁵¹⁾

뿐만 아니라 대간의 주장에 의해 비변사 논의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이는 인조 3년 9월에 조선으로 피신한 毛文龍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던 평안감사 李尙吉의 仍任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 처음 관내 죄인을 잘못 처리한 죄로 이상길을 파면했으나 모문룡이 이를 심하게 항의하자, 대신과 비국당상들이 이상길을 仍任토록 국왕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이를 다시 환수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이상길은 교체되었다. 이것을

48)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 8, 1992, 101쪽.

49) 李在喆, 앞의 저서, 207~212쪽.

50)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군 11년 7월 병오.

51) 『광해군일기』 권161, 광해군 13년 2월 계축.

두고 사평에서 “이상길의 앙임을 군의가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비변사에서 계사를 올려 체직시켰다”⁵²⁾라고 하여 비변사에서 이상길을 교체할 때 삼사의 주장을 수용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즉 비변사 논의를 지칭하던 군의에 삼사의 논의가 반영되었던 것이다.

삼사언론을 비변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으로 ‘引見’이 있었다.⁵³⁾ 인견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왕의 비변사 구성원과 국가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던 회의였는데, 18세기에는 次對라는 용어로 변화되었다. 대신과 비변사당상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 인견에는 삼사의 참석이 당연시 되었고, 비정기 인견도 사전에 삼사에 통보하여야 했다. 인조대 이후 인견에서 국정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사안까지 논의됨으로써 삼사언론이 반영되는 장으로서 인견이 활용되었다. 효종대 이후는 여기서 대간의 피혐, 논핵사안까지 개진되었고, 특히 현종대는 전체 357회 인견 가운데 대간의 발언이 기록된 인견이 137회(40.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대간의 논핵 사안이 51회(15.1%)이며, 피혐처치가 17회(5.0%)에 달하였다. 심지어는 대간의 발언 회수가 비변사당상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 대간은 비변사의 인견을 통해서도 언론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숙종대에도 계속되어 대간이 피혐과 처치를 인견에서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까지 하였다. 예컨대 숙종 33년 2월 인견에서 지평 沈尙尹이 집의 李德英의 삭탈관작사, 이조참판 黃欽·우윤 洪肅의 체차사, 황해감사 崔重泰의 삭거사판사 등 3가지를 논핵한 바 있었다. 국왕은 이를 우의정 李頤命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였다.⁵⁴⁾ 또한 인견에 대간이 불참하더라도 비변사의 논의로 처리하기도 했다.⁵⁵⁾ 대간의 논핵사안이 비변

52) 『인조실록』 권10, 인조 3년 9월 임신.

53) 李在喆, 앞의 저서, 113~126쪽.

李在喆, 「英祖代 次對의 傾向과 性格」, 『歷史教育論集』 34, 2005.

54)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2월 계축.

사에서 발의될 뿐만 아니라 비변사에서 처리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종대 이후 主論者들이 대거 비변사당상으로 진출하여 비변사 운영의 핵심 인물이 됨으로써 삼사 언론을 비변사에 반영할 수 있었다. 현종대 주론자는 閔維重·李慶億·兪榮·趙復陽·朴長遠·李慶徽·閔鼎重·金萬基·金壽恒·金壽興 등이 있었다. 이들은 비변사당상을 차출할 때 주론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현종 7년 6월에 영상 정태화가 김시진·南龍翼을 비변사당상으로 차출하려 했으나 옥당에서 이들이 인망에 부적합하다고 개찰을 요구하였다.⁵⁶⁾ 삼사 탄핵의 대상은 김시진이었었는데, 그가 삼사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만균 처벌에 적극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⁵⁷⁾ 며칠 뒤 인견에서 이 사안을 재론하였는데, 영상 정태화는 과거 대신이 인재를 등용하는데 대해 옥당이 논하는 바가 없었다고 했고, 우상 홍명하는 과거의 주론자는 명망이 있어서 모두 그 논의를 따랐으나 지금은 각자 소견을 고집하고 조정의 논의가 분열되었다고 비판하였다.⁵⁸⁾ 이러한 현상은 언론과 주론자가 연결된 정치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변사로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다른 의미로는 명분과 이해의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사림정치기에 명분과 이해의 갈등 측면이 강한 가운데 현실 정국에서 이를 조정하고 명분을 반영하려는 장치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사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공론(명분)이 고위 신료들에게로 확대되어 감으로서 사림정치가 더욱 난숙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55)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정해.

56) 『현종실록』 권11, 현종 7년 6월 경오 : 『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 7년 6월 경오.

57) 徐必遠과 金萬均의 논쟁에 대해서는 鄭萬祚, 「朝鮮 顯宗朝의 公議·私議 論爭」, 『韓國學論叢』 14. 참조할 것.

58) 『현종실록』 권12, 현종 7년 6월 정묘.

5. 名分の 허구화와 利害의 중시

명분과 이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명분이 허구화되고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는 청나라의 중원 차지로 변화되면서 존명시대 명분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소중화 의식을 강조하는 존명시대의 명분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현실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 청의 지배질서가 굳어지면서 대명의리는 더 이상 현실정치에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청의 문물을 수용하지는 北學論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명분의 예의염치도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명분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와같이 명분이 허구화되면서 현실의 이해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척화론에서 잘 나타났다. 병자호란 후 존명시대의 척화론이 대의명분으로 정리되어 갔고, 조정에서는 반청인물의 상징인 金尙憲을 수차례 등용하고자 했다. 효종 초반 친청 세력인 金自點 일당이 척화론을 대변하던 공론의 공격을 받아 실각하였고, 곧 북벌대외가 주창되었다. 그러나 효종대의 북벌론은 왕위계승의 정통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던 효종의 왕권 강화와 명분을 바탕으로 서인정권의 강화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구되었다.⁵⁹⁾ 따라서 북벌론은 당초부터 명분의 허구성은 내포하고 있었으며, 송시열의 북벌론은 관념적이고 점진적 성격이 강하였다. 송시열은 대청강경론, 존명의리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왕권보다도 존명의리를 상위에 두고자 했다. 이에 현종은 친왕세력을 동원하여 산림 송시열계를 억압하고자 했으며, 양 세력 간의 충돌이 현종 4년 척화신의 후예인 김만균이

59) 李迎春, 「尤菴 宋時烈의 尊周思想」, 『清溪史學』 5, 1988.

禹仁秀,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歷史教育論集』 15, 1990.

청나라 사신의 접대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公議·私議 논쟁으로 증폭되었다.⁶⁰⁾ 이때 유학 黃堦이 송시열계의 대명의리를 다음과 같이 극렬하게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북벌론을) 도모하여 안으로는 자강의 실질이 없고 밖으로는 고상한 이름을 가탁해서 단지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에게 취할 뿐 국가에 화를 끼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어찌 국왕을 존중한다고 하겠으며 어찌 의리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직 '名' 한 자로서 세상의 권력을 농락하고 있습니다.⁶¹⁾

즉 송시열계의 대명의리가 허구화하여 오직 정권장악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대청관계에서 명분적 우위를 확보한 서인 송시열계는 효종 후반 이후 정국을 주도하고, 신권위주의 정국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국왕은 남인·외척·종척 세력을 끌어들이어 환국을 단행하였다. 송시열계는 현실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실무관료나 훈척세력들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송시열계는 권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명분적 우위와 권력(이해)의 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척과 결탁함으로써 벌열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는 곧 명분의 허구화이고 이해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숙종 9년 윤6월 판부사 李尙眞이 趙持謙 등 사류를 구원하는 상소를 올린 뒤 사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삼가 살피건대 사류와 훈척은 예로부터 서로 용납할 수 없다. 어찌 고의로 배반하여 떨어져 나가겠는가? 훈척이라는 자들은 공신가문을 지켜주겠다는 맹세에 기대고 임금의 예우에 의지하여 총애를 믿고 공을 떠맡아서 때때로 지나치게

60) 鄭萬祚, 「朝鮮 顯宗朝의 公議·私議論爭」, 『韓國學論叢』 14, 1992.

61) 『현종개수실록』 권16, 현종 8년 2월 갑술.

외람하였다. 경신환국 이후 세 척리가 멋대로 방자하였는데, 그 중 김익훈이 가장 심하였다. 경신환국 이후 송시열은 갑인예론 이전의 송시열이 아니다.⁶²⁾

즉 현종 15년 갑인예송 이전 원칙론에 철저하던 송시열이 경신환국 이후 현실이해를 중시하던 훈척과 결탁함으로써 명분보다는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산림 송시열계의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류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김석주의 훈련대장 임명에 대한 사평에서

이에 김석주·김만기 등 모두 외척으로서 권병을 잡았으나 김익훈은 김만기의季父로 탐학하고 패행을 하며 뇌물로 지목받았는데, 김수항이 사류로서 달가운 마음으로 붙어서 병권이 兩戚에게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대장을 옮겨 제수하였다.⁶³⁾

라고 하여 사류였던 김만기가 훈척과 결탁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홍주유학 柳長台가 봉당의 폐단을 논하는 상소에서

지금 봉당은 西南小北 세 자이나 戚!! 일당이 점차 심하여 득실을 근심하는 무리가 다투어 쫓습니다. 붙는 자는 복을 받고 미워하는 자는 패배를 당합니다. 국세가 이 때문에 날로 위태로워지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비록 山黨이라도 척리당에 붙은 연후에야 그 명성을 이룰 수 있으니 하물며 다른 것 이야?⁶⁴⁾

라고 하여 산림 송시열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척과 결탁한 모습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62) 『숙종실록보권정오』 권14, 숙종 9년 윤6월 부진.

63) 『숙종실록보권정오』 권13, 숙종 8년 2월 정유.

64)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6월 기미.

그리고 숙종대는 사림의 공론(명분과 의리)이 허구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북벌론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어졌는데, 대명의리를 천명한다는 명분으로 大報壇의 설치되었으며, 공론보다는 권모술수로 정국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국운영에서 명분의 주재자인 사림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정치구조에서 삼사보다는 비변사에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문벌 중 특권적 정치집단이 봉당정치를 가탁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⁶⁵⁾라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다.

국가적 대의명분이 허구화되면서 개인적인 명분도 형식화되어 갔다. 예의렴치, 엄격한 시비변정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⁶⁶⁾ 약간의 혐의라도 받으면 이를 피하고자 했다. 이는 현종 8년 6월 인견에서 우의정 홍명하가

염치를 갈고 닦은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나 근래 신하들이 매양 염치를 일로 삼아 간혹 친구간의 이야기로 인해 呈辭하거나 陳疏하여 출사하지 않고 직을 비우고 일을 폐함은 실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중략) 신이 각사의 문서를 매번 볼 때 奪告罷職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를 받음이 이미 많으니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罷散者가 많고 注擬가 역시 궁핍하여 비록 한 수령의 의망시 장부를 살펴보아도 끝내 구차스러운 체움을 면하지 못합니다.⁶⁷⁾

라 하여 지나친 염치의 존중으로 파산자가 많이 늘어난 폐단을 지적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언관의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피험과 처치 제도에서 출발하였으나, 일반 관서의 관원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 관직을 기피하게 되었다. 예컨대 현종 5년 윤6월에 우상 홍명하는 이조에 당상관은 물론 낭관조차 여러날 출사하지 않는다⁶⁸⁾고 비판하였다. 관직의 기

65) 『숙종실록보결정오』 권17, 숙종 12년 12월 :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월 을미.

66) 『광해군일기』 권57, 광해군 4년 9월 을사 :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 6월 신축.

67) 『현종실록』 권14, 현종 8년 6월 정해.

68) 『현종개수실록』 권11, 현종 5년 윤6월 계유.

피는 관직 대기자, 곧 파산자를 증가시켰고 이 때문에 注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파산자가 늘어나면서 실제 관직에 근무하는 관원은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현종 5년 9월에는 三曹의 참판·한성우윤·부제학·대사성 모두 차출할 수 없었고, 심지어 대사헌은 반년이 지나도록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⁶⁹⁾라고 하였던 것이었다.

현종대 이러한 관직의 기피, 관원의 잦은 교체 원인이 염치를 지나치게 존중한 데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이는 봉당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혐의를 피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명분적 정당성을 지닌다면 소신껏 이를 주장하고 관철시켜나가야 했지만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간에 취직하기를 꺼리는 풍조를 해결하고자 염치와 관계되는 이외 사안으로는 체직을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⁷⁰⁾ 이것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던 점은 이를 잘 나타낸다. 그리하여 숙종대는 이 현상이 더욱 심하여 국왕이 신하를 불러도(牌招) 명을 칭하거나 부모봉양, 대청관계 등 사적인 이유를 들어 관직에 나오지 않는(違牌) 자가 늘어났다. 원래 위패는 대간으로부터 논핵을 당하여 혐의를 지닌 대간이 출사를 거부한 데서 유래하였지만, 이 시기 위패는 삼사관원 이외에 비변사당상을 비롯한 이조당상, 將臣, 의금부관원, 試官 등 일반 신료들에게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봉당 간 알력의 근원지인 전조 관원이 가장 심하여 도목정이 제대로 실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즉 명분이 허구화되면서 개인적 명분인 예의염치가 단순히 보신책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해를 중시하면서 국정운영에서도 명분보다는 이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봉당간의 갈등이 심화된 숙종대에 극심하게 나타났다. 숙종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69) 『현종개수실록』 권11. 현종 5년 9월 경인.

70) 『현종개수실록』 권5. 현종 2년 1월 갑인.

금일 조정은 삼분오열되고 문호가 각립하였다. 서로 싸워 시비가 공정하지 못하며, 사사로운 뜻이 횡류하고 뜻이 통하지 않고, 의심이 날로 깊어져 간다. 하루 이를 점점 치료하기 어려워져 풍파가 식지 않고 정박이 기약 없다. 조정은 오락케가 만나는 장이 되고 鬪計는 서로 잊어버리는 지경이 되었다.⁷¹⁾

즉 봉당 간의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거의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 숙종 36년 윤7월에 민진원이 종래는 봉당 간의 대립이 이념이나 학통 시비 등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정책 논의와 집행에까지 미쳐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⁷²⁾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다.

17세기 말 명분이 허구화되고 현실의 이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했다는 것은 곧 사립정치의 종언을 의미한다.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되, 이해와의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현실 정국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던 사립정치의 논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즉 사회경제적 관계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명분보다는 이해에 따라 몽쳤던 소수 별열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양반 사람의 다수 논의(공론) 보다는 개인적 이해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6. 맺음말

본고는 17세기 조선정치사를 관통하는 논리가 무엇이었던가에 착목하고, 이를 원칙을 강조하는 명분과 현실상황을 중시하는 이해의 두 요소로 설명하고자 했다. 사립정치의 특징인 원칙과 명분이 대체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조정과 변용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래서 종래 연구

71) 『숙종실록』 권45, 숙종 33년 11월 경술.

72)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윤7월 정유.

에서 이해와 명분의 한 측면에서 파악한 인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명분은 사람이나 사물, 행위 등이 지닌 명목과 그 명목에 합당한 본분을 의미한다. 17세기 조선 정치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명분으로 위로는 국가의 존망이나 왕실의 정통성 여부가 달린 존명사대와 예론이 있었고, 아래로는 양반지배층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된 예의염치가 대표적이었다. 명분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쟁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세력의 분화도 뒤따랐다. 따라서 봉당 간의 공존은 일시적이었으며, 결국 명분적 우위를 차지한 정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해는 가변적인 현실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논리이다. 인조반정 이후 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화론이나 예송에서 왕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남인의 예론을 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 권력의 향방에 따라 봉당 내부에 이합집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정착되면서 명분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을 중심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은 존화양이의 대의명분을 지키려는 척화론과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리적 입장을 취하려는 주화론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元宗 追崇論에서는 定遠大院君을 종통에서 배제시키려는 명분론과 추송을 통하여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반정의 공로를 정당화하려는 이해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 외 예송은 현실의 이해 측면을 중시한 王朝禮 중심의 분별주의 경향과 원칙의 명분 측면을 중시한 家禮 중심의 보편주의 관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명분과 이해의 갈등 구도는 이를 실현하는 정치구조에서 삼사와 비변사와의 대립으로 전개되었다. 삼사는 사림의 논의를 공론으로 수렴하여 현실 정치를 성리학적인 명분의 기준에서 판단하였다. 반면에 비변사에서

집약된 논의를 ‘群議’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삼사의 공론과는 달리 이해를 우선시 했다. 양측의 갈등은 임란시 일본과의 강화 여부, 광해군때 후금에서 보낸 국서의 수용 여부, 정묘·병자호란시 강화 논쟁 등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질서가 청의 중원 지배로 굳어지면서 점차 해소되어 갔지만, 이후에도 국내정책의 논의와 집행과정에서 지속되었다.

17세기 봉당론 중 군자소인론은 원칙적(명분적) 주장이고, 조제론은 이 원칙을 조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나의 현실(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군자소인론은 명분을 강조하는 사립정치의 운영논리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정당성을 발휘하였다. 반면에 조제론은 봉당 내에 군자와 소인이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인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대다수 관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정치세력은 주자성리학의 원칙론에 충실했던 세력과 현실의 가변적인 이해를 중시했던 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산림세력이 중심이었고, 후자는 훈척, 실무관료, 공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봉당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세력이 형식적으로는 명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분과 이해는 서로 갈등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대체로 현실 정국운영에서 양자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원칙론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이해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17세기 사립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명분론의 집착은 현실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었고, 반면에 현실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립정치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이었다. 명분과 이해가 조정되는 과정은 명분을 대변하던 삼사의 논의가 인견이나 주론자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비변사의 논의에 반영되는 데서 확인된다.

명분과 이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명분이 허구화되고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는 청나라의 중원 차지로 변화되면서 존명시대 명분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이를 현실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명분의 예의염치도 정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명분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정치세력의 동향에서도 효종 후반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서인 송시열계는 환국을 거치면서 명분적 우위와 권력(이해)의 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척과 결탁함으로써 벌열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요컨대 훈구파의 전횡과 비리를 극복하면서 확립된 17세기 사림정치는 원칙과 명분에 투철하고자 노력하면서 현실의 이해를 중시하는 제측면과 갈등을 벌였고, 삼사의 공론을 정책을 결정하는 비변사에 확산,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붕당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현실을 이해를 중시하게 되면서 사림의 명분은 퇴장하고, 사림정치의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星湖集』

『擇里志』

李泰鎮 외,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85.

鄭萬祚 외, 『韓國史上의 政治形態』, 一潮閣, 1992.

李成茂 외,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 1992.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李在喆, 『朝鮮後期 備邊司研究』, 集文堂, 2001.

禹仁秀,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 『歷史教育論集』15, 1990.

鄭萬祚, 「顯宗朝 私議·公議 論爭」, 『韓國學論叢』14, 1991.

李在喆, 「暹川 崔鳴吉의 經世觀과 官制變通論」, 『朝鮮史研究』1, 1992.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8, 1992.

吳恒寧,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9, 1993.

이훈상, 「회고와 전망」 조선후기편, 『역사학보』152, 1996.12.

李在喆, 「朝鮮後期 政治史의 研究動向과 高교 국사교과서의 敘述-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歷史教育』67, 1998.

李在喆, 「英祖代 次對의 傾向과 性格」, 『歷史教育論集』34, 2005.

Abstract

The cause and interests i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Choson kingdom in the 17th century

Lee, Jae-Chul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undamentals to understand political history of the Choson kingdom in the 17th century: the just cause and interests. The former stressed the principle, while the latter emphasized the reality. The just cause represents names held by men, things, and conducts and their duties proper to them. On the other hand, interests serve as logic to cope well with variable realities of life. The cause that greatly influenced political history of the Choso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included *sadae* (serving the great) toward the Chinese Ming Empire, the study on ritual, a sense of honor, while interests contained the advocacy of peace, the theory of the *Namin* (southerners) in the debate on ritual, the formation of factions for power struggles. Firmly established as Chosons political ideology, Neo-Confucianism led to conflict between the just cause and interests in the dynastys politics. Well-known examples of the conflict included confrontation between advocacy of peace and advocacy of war, conflict between merit subjects who enthroned King Injo and *Sannim* scholars who were out of office in the controversy over the posthumous conferment of Wonjong, father of King Injo, conflict between the *Seoin* (westerners) faction and the *Namin* faction in the debate on ritual, conflict between Samsa (Office of Special Advisers, Office of the Inspector-General, and Office of the Censor-General) and Bibyeonsa (Border Defense Council) in the political structure, conflict between the theory in which each faction should divide itself into the clique of persons of virtue and the clique of small-minded men and should recognize only the former clique as the legitimate political force and the theory in which because each faction included both persons of virtue and small-minded men and thus only the former in the faction should conduct the affairs of state, and conflict between idealists and realists to take the helm of state affairs.

Although the cause and interests conflicted against each other, as a whole the two principles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ir opponent. Compromise between them led to the developments in the political situation by Neo-Confucian literati in the 17th century. Extreme tenacity for the cause might involve some risk to deny the reality, while excessive realism might lead to the erratic political situation. Compromise between the cause and interests is confirmed by the fact that discourse in Samsa which represented the cause was reflected in the debate in Bibyeonsa through kings meeting with high-ranking Bibyeonsa officials (*ingyeon*) and the participation of opinion leaders of Neo-Confucian literati (*juronja*) in the Bibyeonsa discourse.

As time passed by, conflict between the cause and interests led to the decline of the former and the emphasis of the latter. The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 Ming Empire could not be actually maintained with Qings takeover of the mainland China. Rather, some leaders made use of the new situation in China in order to seize power. Furthermore, as the struggle for power among factions intensified, the personal cause became a means to reflect actual interests rather than values of the cause. Experiencing several political upheavals, Seoins Song Si-yeol faction that led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reign of King Hoyojeong became in collusion with queens-in-laws.

In sum, Neo-Confucian literati, who had overthrown the regime of arbitrary and corrupt meritorious elite, led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17th century. They made efforts to cling to the principle and cause and experienced serious conflict with several aspects emphasizing interests of the reality. They tried to make Bibyeonsa, the actual decision-maker, adopt their propositions in Samsa as state policies. As factional struggles intensified and interests of the reality were stressed, however, the cause advocated by Neo-Confucian literati declined and their leadership in politics finally came to an end.

Key Word

the cause, interests, the posthumous conferment of Wonjong(元宗追崇), advocacy of peace(主和論), advocacy of war(斥和論), *Yesong* (禮訟), *Samsa* (三司), *Bibyeonsa*(備邊司), *gunja soin-ron* (君子小人論), *joje-ron* (調劑論), *juronja* (主論者), *ingyeon* (引見)